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과 특성*

이 영 수**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2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식별하고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사회보장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실질적 사각지대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지만, 상당한 규모의 임금근로자가 여전히 실질적 사각지대에 포함된다. 집단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요인별 다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40·50대의 사각지대 비율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상용직의 사각지대 비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임시직, 특히 일용직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각지대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기업 규모 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조합 유무,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항로짓 및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서비스·판매직,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집단에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 구조 내에서 적정 수준의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길현중·이영수·정성미(2025),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고서 중 제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 인천대학교 교수(yslee@inu.ac.kr).

다양한 한계를 보인다(길현중 외, 2024). 상당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과 미도입 사업장 간 격차가 확인되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다수의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기능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퇴직급여제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퇴직급여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역시 다양한 이유로 퇴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임에도 1년을 계속하여 일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퇴직급여의 법적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급하지 못하는 집단, 예컨대, 퇴직급여 체불,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용자의 회피, 근로기간 및 시간 계산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위법, 탈법 및 편법 행위, 근로자의 권리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한 실질적 사각지대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집단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규모, 유형,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역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어떤 집단이 퇴직급여로부터 배제되어 있는지 특성 및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특성 및 분석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급여 법적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본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로 규정하였다.

본고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의 추이 및 집단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2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분석 시점 기준 가장 최근 자료인 26차(2023년) 자료가 분석에 포함된다. 차수별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에 포함된 퇴직급여(퇴직금) 관련 문항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임금근로자로 제한된다. 한국노동패널 개인용 자료에 포함된 근로계약 기간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퇴직급여 법적 적용 대상을 식별한 후, 퇴직급여(퇴직금) 제공 사업장 여부 및 본인 적용 여부 정보를 활용하여 퇴직급여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질적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식별하였다.

퇴직급여(퇴직금)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응답하거나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세부적인 사유는 다양할 수 있다. 제도의 모호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회피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근로자가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다양한 사유로 퇴직급여 비적용을 받아들이거나, 절차적·관행적 사유로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길현종 외, 2025). 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분석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201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실질적 사각지대의 변화 추이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노동조합 여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수준 등을 중심으로 집단별 실질적 사각지대의 특성 및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이항로짓(binary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차수별로 각각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26차(2023년) 자료를 결합한 패널 자료를 구축한 후 패널로짓(panel logit) 분석을 활용하여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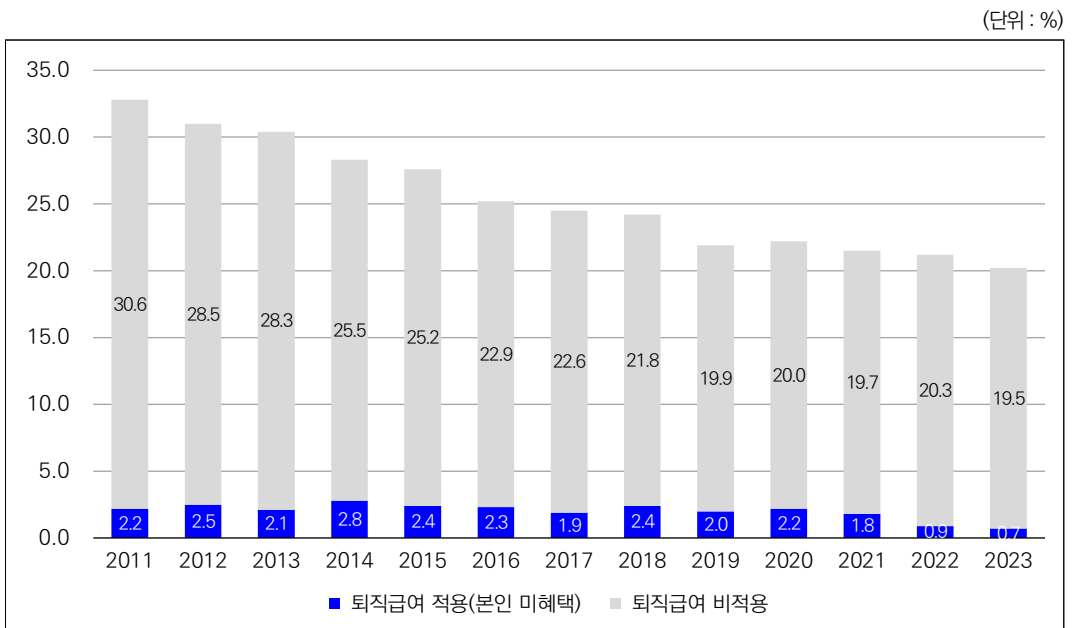
III. 분석 결과

1.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

연도별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기준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32.8% 수준이며(퇴직금 비적용 사업장 30.6% + 퇴직금 적용 사업장이나 본인 비적용 2.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 27.6% (25.2% + 2.4%), 2019년 21.9%(19.9% + 2.0%), 2023년 20.2%(19.5% + 0.7%) 수준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0년 전후부터 20%대의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법적 적용 대상임에도 급여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림 1]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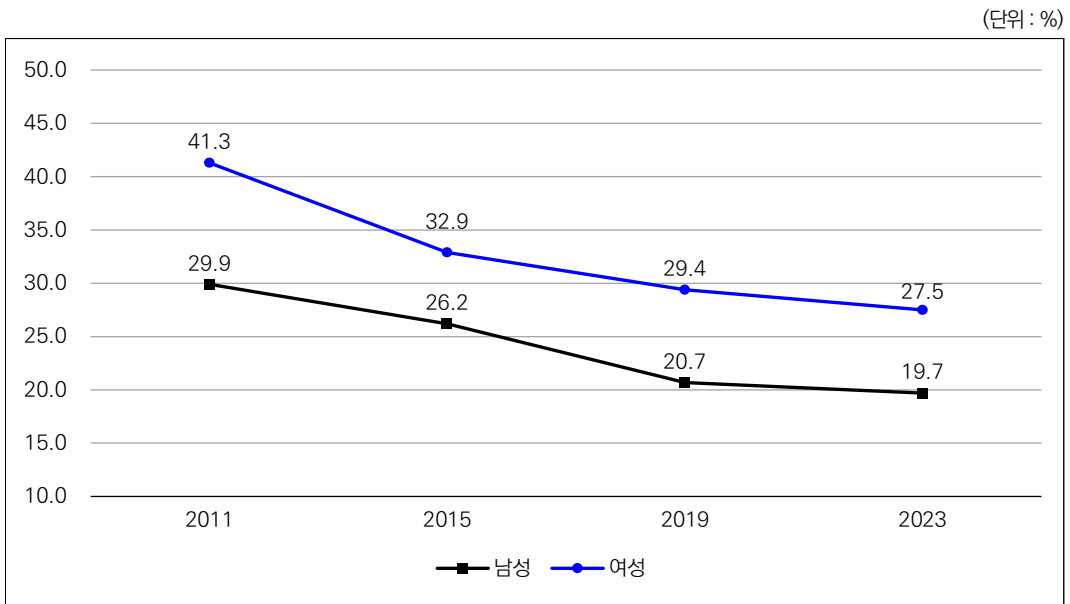
주 :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4~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2. 실질적 사각지대의 집단별 격차

다음으로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직종, 기업 규모, 노동조합 여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임금 수준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별 실질적 사각지대의 현황 및 격차를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 14차~26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나, 여기서는 14차(2011년), 18차(2015년), 22차(2019년), 2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그림 2]~[그림 10]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남성의 경우 2011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사각지대 규모가 29.9%에서 19.7%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41.3%에서 27.5%로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인 사각지대 감소 추이에 따라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 모두 사각지대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성별 격차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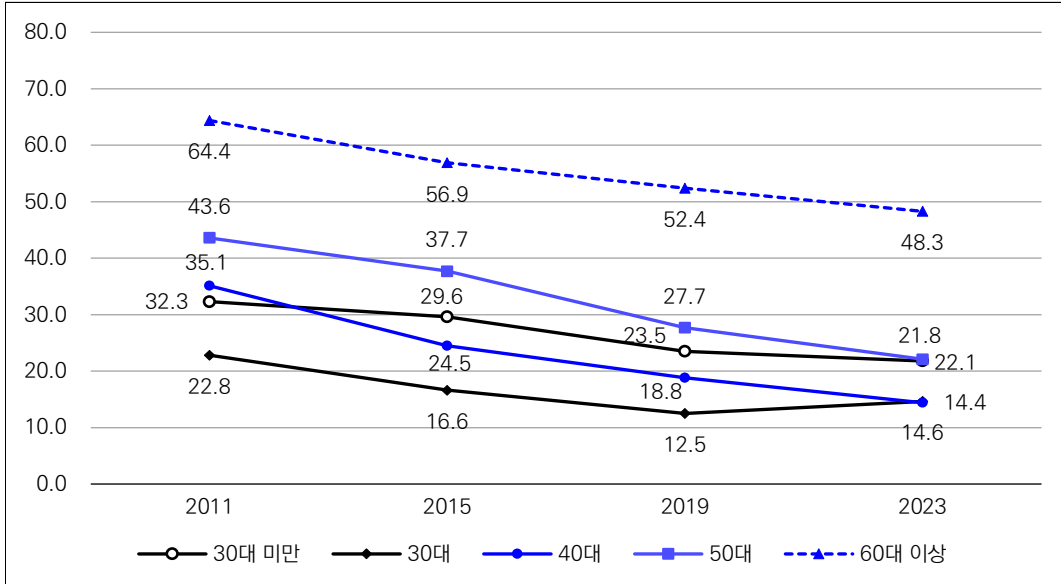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다음으로 [그림 3]에 제시된 연령대별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높고, 30대와 40대 근로자 집단의 사각지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40대와 50대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 반

[그림 3]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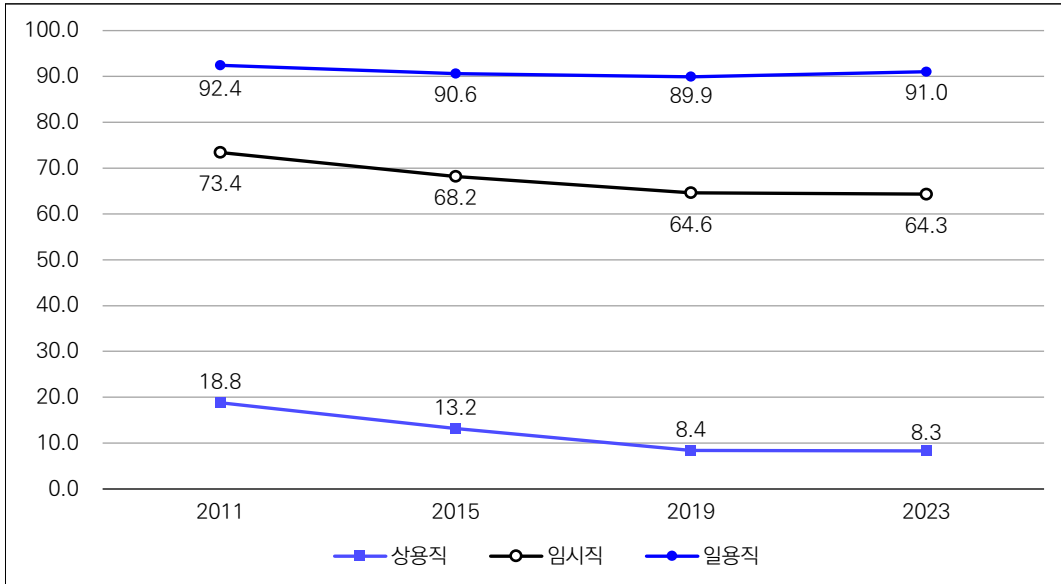
(단위: %)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4]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종사상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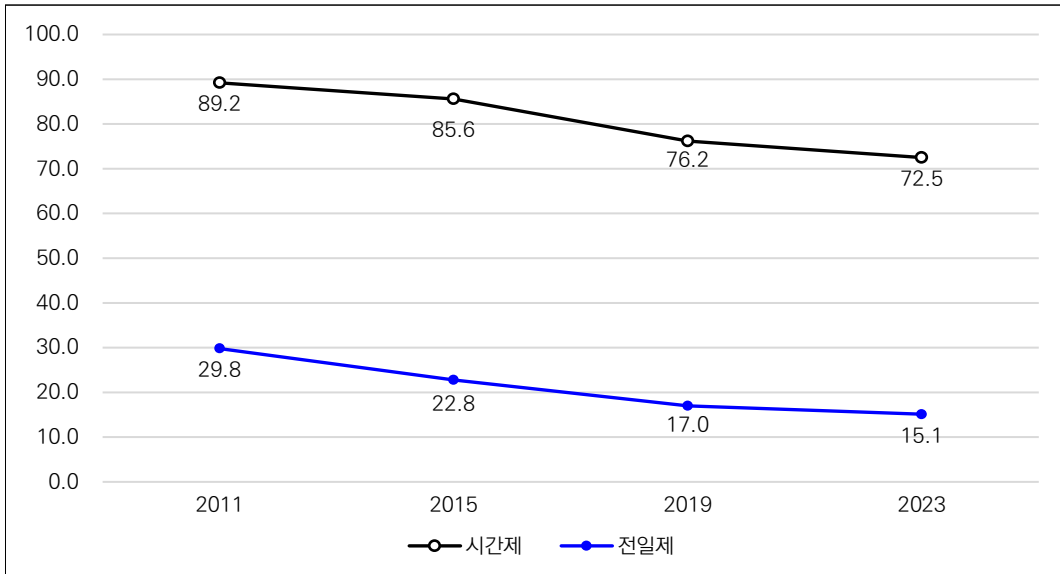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면(40대 2011년 35.1%에서 2023년 14.4%, 50대 43.6%에서 22.1%), 타 연령대의 경우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도 사각지대 규모가 48.3%로 매우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추이 및 집단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간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상용직의 경우 2011년 18.8%에서 2023년 8.3%까지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임시직, 특히 일용직의 경우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2011년 92.4%, 2023년 91.0%)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5]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근로시간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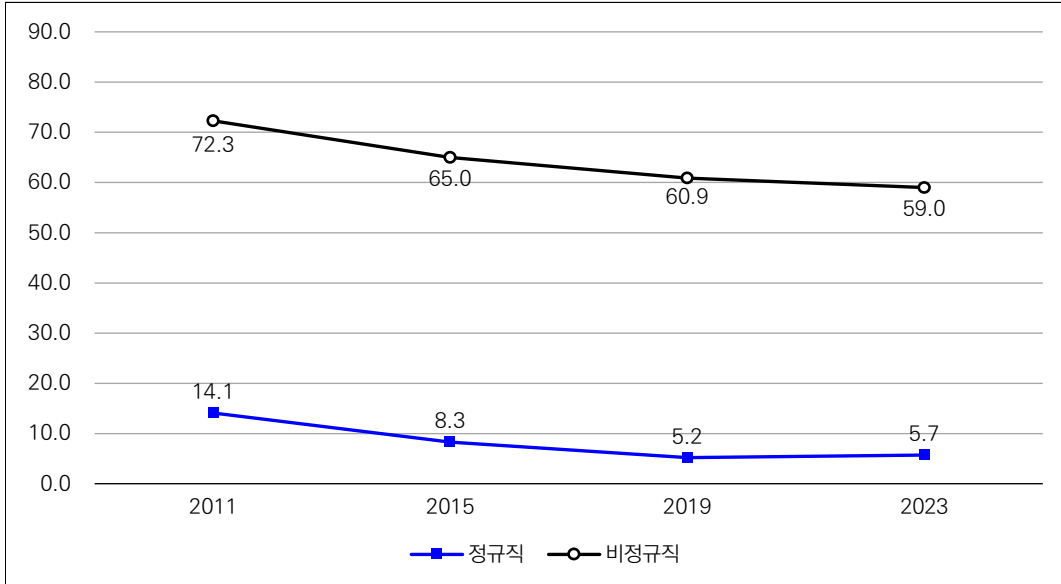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근로시간 형태 및 정규직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역시 집단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5]에 제시된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추이 및 격차를 살펴보면,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의 사각지대 비율이 매우 높다(2023년 기준 전일제 15.1%, 시간제 72.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모두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별 차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6]에 제시된 정규직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의 추이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규직의 경우 2011년 14.1%에서 2023년 5.7%로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2011년 72.3%에서 2023년 59.0%로 감소하였다.

[그림 6]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정규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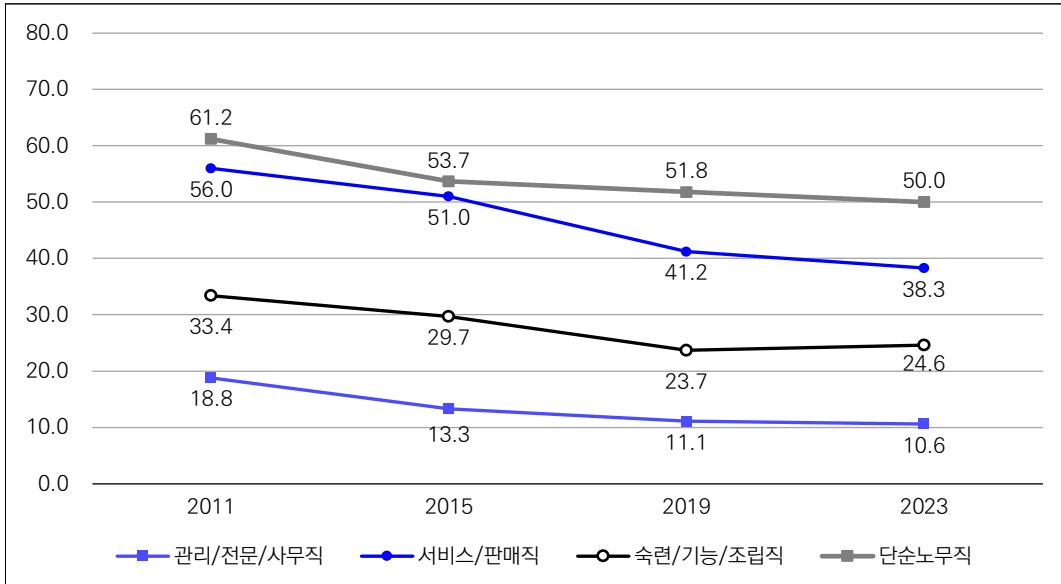
(단위: %)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7]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직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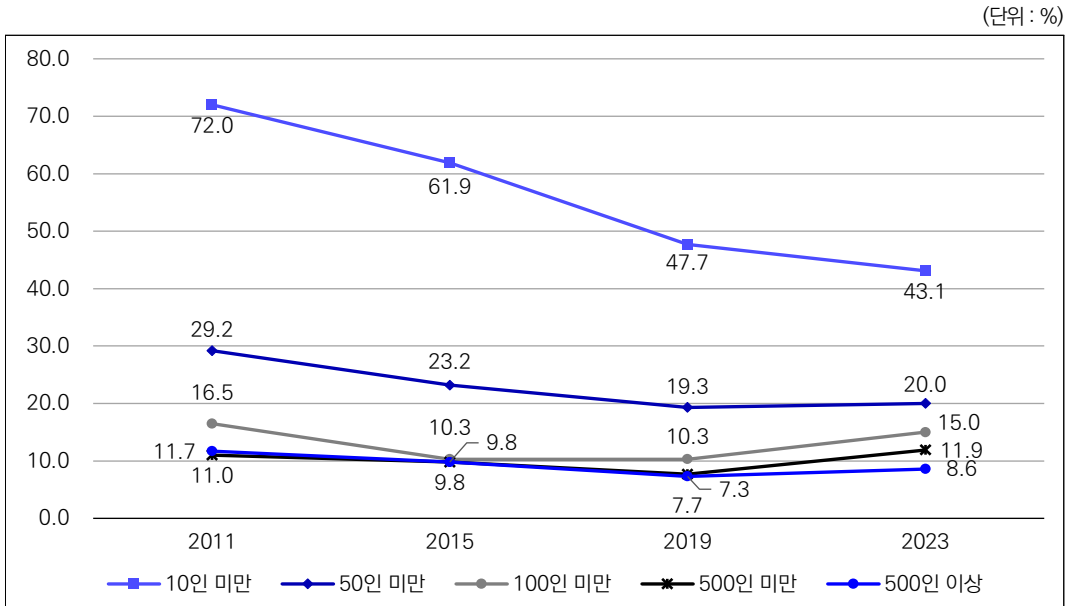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다음으로 [그림 7]에 제시된 직종에 따른 추이 및 격차를 살펴보면 직종 간 실질적 사각지대의 차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관리·전문·사무직의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낮고, 숙련·기능·조립직, 서비스·판매직, 단순 노무직 순서로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 서비스·판매직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규모가 타 직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2011년 56.0%에서 2023년 38.3%), 직종에 따른 전반적인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8]에 제시된 기업 규모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11년 72.0%에서 2023년 43.1%로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인 이상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사각지대 비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8]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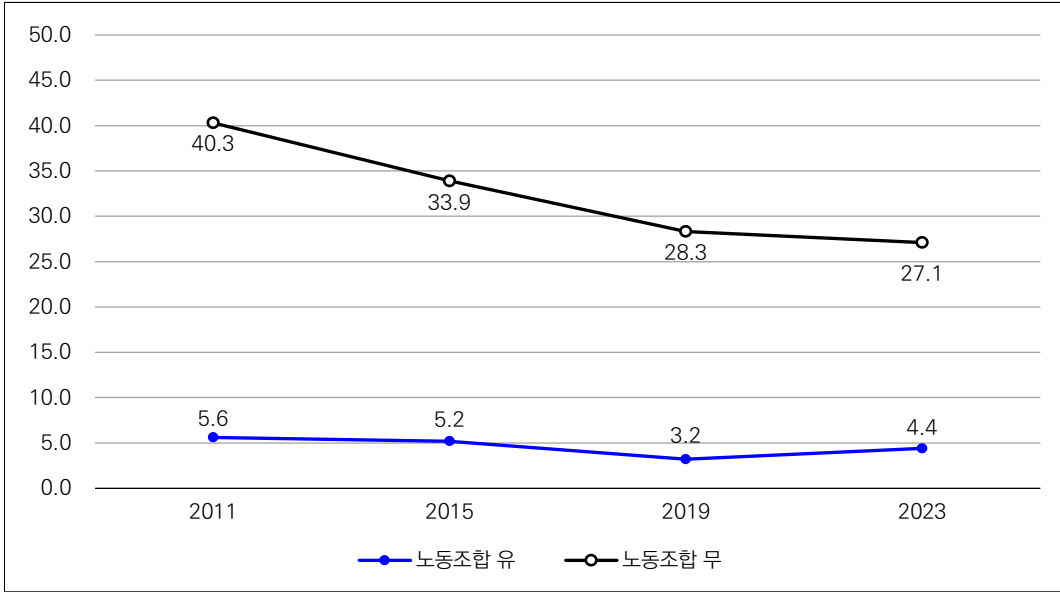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다음으로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격차 역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1년 5.6%에서 2023년 4.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2011년 40.3%에서 2023년 27.1%로 사각지대 규모가 줄어 격차가 줄어들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격차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의 격차 역시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그림 9]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노동조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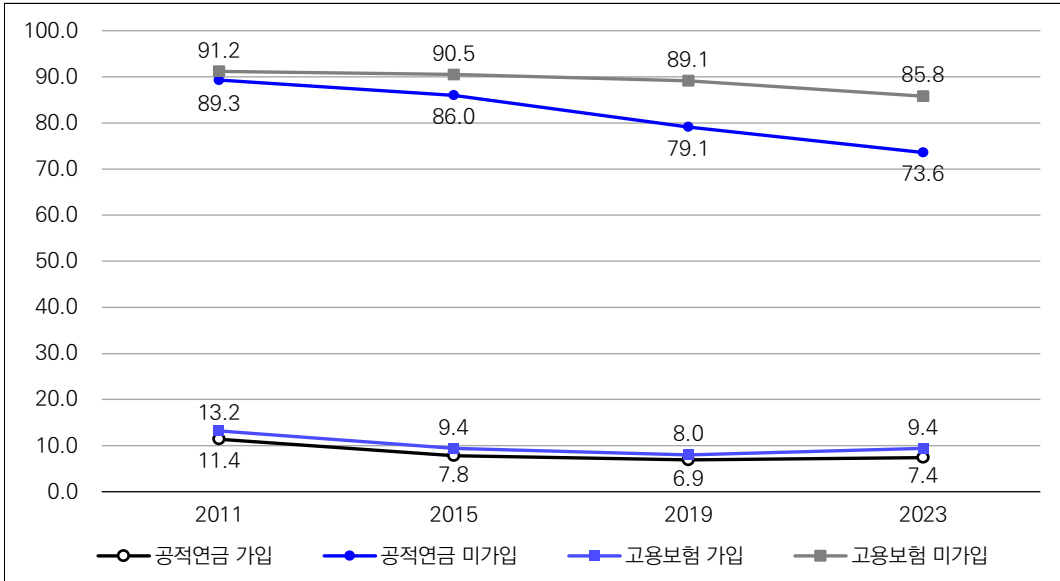
(단위: %)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10]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추이 및 격차: 공적연금·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주: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지만, 전반적으로 큰 격차가 확인된다. 2023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집단의 사각지대 비율은 각각 7.4%, 9.4% 수준인데, 미가입 집단에서는 73.6%, 85.8%로 여전히 큰 격차가 확인된다. 한국에서의 퇴직급여(퇴직금)는 실업 및 노후 소득에 대한 대체 역할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길현중 외, 2024)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의 격차와 퇴직급여 격차가 증첩되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포함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실질적 사각지대 여부(1=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으로 앞서 논의한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 요인과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직종, 노동조합 여부, 임금 수준 등 일자리 특성 관련 요인,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보장 관련 요인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26차(2023년)까지 차수별로 분석하였으나, 14차(2011년), 18차(2015년), 22차(2019년), 2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수별로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및 연령의 경우 여성, 60대 이상 연령층의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남성, 타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제시한 이변량 분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격차와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보다 일자리 특성 및 사회보장 관련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직, 특히 일용직의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2011년, 2015년에 비해 2019년, 2023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은 차수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2011년 및 2019년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5년, 2023년에는 시간제 근로의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각각 $b=.70, p<.05$, $b=.35, p<.0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역시 일관되게 확인되는데, 다만 가장 최근 시기인 2023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점이 확인된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 직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대체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23년에는 서비스·판매직의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기준 집단인 관리·전문·사무직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b=.54, p<.001$). 사업장 내 노동조합 여부 역시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조합 유무

〈표 1〉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 : 이항로짓분석

		2011	2015	2019	2023
성별	(남성)				
	여성	-.44(.14)**	-.53(.18)**	-.31(.13)*	-.23(.11)*
연령	(30세 미만)				
	30대	.15(.20)	-.34(.29)	-.28(.21)	-.09(.19)
	40대	.17(.21)	-.53(.27) †	.11(.20)	-.16(.19)
	50대	.07(.23)	.05(.27)	-.07(.20)	-.05(.19)
	60대 이상	-.80(.27)**	-1.16(.32)***	-.87(.24)***	-.93(.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사직	.71(.21)**	.52(.20)**	1.21(.15)***	1.23(.14)***
	일용직	1.56(.28)***	1.59(.26)***	2.30(.23)***	2.90(.21)***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시간제	.40(.29)	.70(.29)*	.04(.19)	.35(.17)*
정규직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1.00(.19)***	1.05(.19)***	1.06(.15)***	.67(.14)***
직종	(관리·전문·사무)				
	서비스·판매	.16(.19)	.33(.22)	.21(.16)	.54(.14)***
	숙련·기능·조립	-.24(.17)	-.02(.22)	.11(.16)	.20(.14)
	단순노무	-.33(.21)	-.22(.25)	-.04(.18)	.02(.16)
노동조합	(없음)				
	있음	-1.01(.22)***	-.80(.26)**	-.84(.24)**	-.41(.20)*
공적연금	(미가입)				
	가입	-1.69(.23)***	-1.70(.23)***	-1.22(.20)***	-1.32(.20)***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1.97(.22)***	-2.31(.21)***	-2.60(.18)***	-1.97(.16)***
임금(로그)		-.43(.15)**	-.52(.17)**	-.78(.16)***	-.71(.13)***
상수항		3.74(.84)***	4.32(1.07)***	4.88(.89)***	4.24(.74)***
		N=4,543 Wald x2(16)=1,088.31*** Pseudo R2=.54	N=4,756 Wald x2(16)=1,011.44*** Pseudo R2=.60	N=8,063 Wald x2(16)=1,543.47*** Pseudo R2=.62	N=8,290 Wald x2(16)=1,814.20*** Pseudo R2=.56

주 : 기업 규모 변수는 '잘 모르겠음' 응답으로 인한 결측치가 상당수 존재하여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음. 기업 규모를 포함한 분석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퇴직급여 사각지대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음. 차수별 통합표본 횡단가중치 적용하여 각각 분석.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에 따른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011년 $b=-1.01$, $p<.001$, 2023년 $b=-.41$, $p<.001$). 임금 수준 역시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일관되게 보이는데,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격차 역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비교하여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퇴직급여가 생활비 부족, 실업 등의 상황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길현중 외, 2024)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는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26차(2023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한 후 패널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ρ 값은($\rho=.49$, $p<.001$) 관측되지 않은 군집(cluster) 수준의 이질성을 고려한 확률 효과 또는 고정 효과 모형이 선호됨을 의미한다. 확률 효과와 독립변수 간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하면 고정 효과 모형이 선호될 수 있으나, 고정 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종속변수 값의 변동이 없는 상단수의 표본 및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가 분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 2〉에는 확률 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 : 패널로짓 분석

		확률 효과	Hybrid 모형 (B-W 모형)	
			Within	Between
성별	(남성)			
	여성	-30(.06)***	-.27(.06)***	
연령	(30세 미만)			
	30대	.02(.07)	.20(.13)	-.13(.11)
	40대	.08(.07)	.29(.18)	-.05(.10)
	50대	.13(.08)	.40(.23) †	.06(.10)
	60대 이상	-.63(.09)***	-.04(.28)	-1.06(.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	1.46(.06)***	1.35(.11)***	1.47(.10)***
	일용직	3.26(.10)***	2.86(.18)***	2.87(.14)***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시간제	1.06(.07)***	.97(.14)***	.98(.10)***
정규직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1.20(.06)***	1.03(.11)***	1.12(.09)***

〈표 2〉의 계속

		확률 효과	Hybrid 모형 (B-W 모형)	
			Within	Between
직종	(관리·전문·사무)			
	서비스·판매	.49(.06)***	.46(.14)**	.25(.08)**
	숙련·기능·조립	.02(.06)	-.30(.16)*	.13(.08)†
	단순노무	.05(.07)	.14(.16)	-.16(.10)
노동조합	(없음)			
	있음	-.94(.08)***	-.56(.10)***	-1.27(.12)***
공적연금	(미가입)			
	가입	-1.76(.07)***	-1.62(.09)***	-1.62(.17)***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2.79(.06)***	-2.02(.08)***	-4.73(.16)***
임금(로그)		-.002(.0002)***	-.003(.0004)***	-.001(.0003)***
상수항		-2.51(.14)***	3.28(.26)***	
		N=83,830 Wald $\chi^2(28)=11,028.78$ *** rho=.49***	N=83,830 Wald $\chi^2(55)=7,527.18$ ***	

주: 기업 규모 변수는 '잘 모르겠음' 응답으로 인한 결측치가 상당수 존재하여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음. 기업 규모를 포함한 분석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퇴직급여 사각지대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음. 최근 차수 통합표본 종단가중치 포함하여 분석. 분석모형에 연도 더미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 p<.10, *p<.05, **p<.01, ***p<.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하여 저자 분석.

한편, 고정 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hybrid 방법 또는 B-W 방법이 제안되어 활용되고 있다(Allison, 2009). 독립변수를 군집 내(within) 요소와 군집 간(between) 요소로 분해하여 군집 내, 군집 간 회귀계수를 각각 추정한다. B-W 방법을 이항로짓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편이가 크지 않고 고정 효과 모형이나 확률 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모수치에 근접하는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Allison, 2009; Sjölander et al.,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W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추가로 제시하였다.

패널로짓모형 분석 결과 역시 차수별 로짓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특성 및 사회보장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사각지대 격차가 확인되는데,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직 및 특히 일용직, 전일제 대비 시간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서비스·판매직,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질적 사각지대 포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IV. 결 론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4차(2011년)부터 26차(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식별하고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사회보장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실질적 사각지대의 특성 및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의 임금근로자가 실질적 사각지대에 포함되고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특성 및 사회보장 관련 요인으로 구분되는 집단별 실질적 사각지대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는데, 전반적으로 사각지대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집단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요인별로 다소의 차이는 확인되는데 40대·50대의 사각지대 비율 감소폭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상용직의 사각지대 비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임시직, 특히 일용직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각지대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기업 규모의 경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기업 규모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조합 유무,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격차 역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큰 폭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항로짓모형 및 패널로짓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서비스·판매직,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집단에 퇴직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의 사각지대 분석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의 연금화,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패널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한국노동패널을 포함한 기존의 자료들은 퇴직급여제도를 다면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여러 한계를 지닌다. 기존의 패널 자료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부 문항을 포함하거나, 주기적인 부가조사 등을 활용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 관련 연구에 특화된 새로운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의 행정 DB 및 기업 수준 자료와 결합하여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KLI**

[참고문헌]

길현종 · 이승호 · 이영수(2024),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 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 이영수 · 정성미(2025),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Allison, P. D.(2009),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Sage Publications.

Sjölander, A., P. Lichtenstein, H. Larsson, and Y. Pawitan(2013), “Between-within Models for Survival 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32(18), pp.3067~3076.